

■ 전후 학년과의 연계성

소단원명	고등 국어 성취 기준	전후 학년 관련 성취 기준
(1)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10국01-01]	고등 심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12화작01-01] 고등 심화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12화작01-03]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10국01-02]	중 1~3학년군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9국01-02] 고등 심화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한다. [12화작02-08]
(2) 소통하는 글쓰기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사회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1]	고등 심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12화작01-01] 고등 심화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12화작01-03]



1

마음을 담은 언어

(1)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듣기 · 말하기

-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소통하는 글쓰기 쓰기

-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 단원 핵심 역량

핵심 역량	단원과의 관련성
의사소통	소단원 (1)은 개인적 성향, 세대, 성별, 지역 등에 따라 듣기 ·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잘 지켜 대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이 있다. 그리고 소단원 (2)는 쓰기를 통해 독자와 상호 작용하는 데 중점이 있다. 이 점에서 두 소단원의 학습은 의사소통 역량과 밀접하다.
공동체 · 대인 관계	소단원 (1)에서 학생들은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한다. 그리고 소단원 (2)에서 쓰기를 통해 독자와 상호 작용을 하는데, 이는 원활한 공동체 ·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기 성찰 · 계발	소단원 (1)에서는 자신의 듣기 · 말하기 습관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나아가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듣기 · 말하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통합 실천 학습에서는 면담 활동 후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 내용과 과정,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

자주
적용
활용

의사
소통

공동체
대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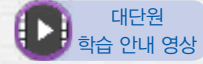
문화
향유

자기
성찰·계발

단원의 길잡이



학습 목표



1.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할 수 있다. → 소단원 (1)
2.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소단원 (1)
3.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 → 소단원 (2)

단원을 열며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듣고 말한다.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며 쓰는 언어를 통한 소통 활동 일을 통해 다른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어 나간다.

이 단원에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고,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듣고 말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해 본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언어생활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자.

안녕!

할머니, 오늘도 꽃이 정말 예뻐요.

칭찬 고맙구나. 학교 잘 다녀오렴.

배울 내용 한눈에 보기



(1)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 학습 목표 1, 2

-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이해하기
-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 개인적 성향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듣고 말하기

(2) 소통하는 글쓰기 → 학습 목표 3

- 블로그 글 <청기와' 발견 사건>과 댓글 살펴보기
-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기
-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고려하여 글 쓰기

통합 실천 학습

- 우리 동네 이웃 면담하기



✓활동 안내 이 단원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활동이다.

미리 생각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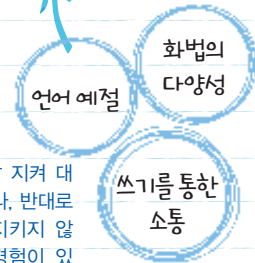


🌱 배울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떠오르는 경험을 써 보자.

예) 공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

| 생각 끌어 주기 |

- '화법의 다양성'의 사례를 주변에서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 언어 예절을 잘 지켜 대화했던 경험이나, 반대로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가?

-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는가?

🌱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것을 질문 형식으로 써 보자.

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생각 끌어 주기 |

-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나 내용은 무엇인가?
- '단원의 길잡이'에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 관심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 평소에 잘 몰랐거나 실행하지 못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1)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 학습 목표**
1.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할 수 있다.
 2.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단원 열기



✓활동 안내

기분 좋았던 대화 경험과 그렇지 않았던 대화 경험을 떠올려 봄으로써, 좋은 대화, 바람직한 대화, 원활한 대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기분 좋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며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 있다.

✓지도 Tip

학생들이 대화 경험을 떠올릴 때,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상대방의 대화 태도 등을 함께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 기분 좋게 대화했던 경험과 그렇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각각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기분 좋았던 대화의 상황 : • 후배가 약속 시간에 늦어 나에게 사과하는 상황이었었는데, 후배가 진심을 담아 예의 바르게 사과해 후배에게 기졌던 서운한 마음이 말끔히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 지난 주말에 공원 벤치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학교생활에 대해 물으셨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셨고, 내가 사용하는 유행어나 줄임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시다가 그 뜻을 알려 드리자 무척 재미있어 하셨다.

그렇지 않았던 대화의 상황 : 며칠 전 쉬는 시간에 친구가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하나도 못 했으면서 나에게 다짜고짜 도와 달라고 했다. 친구가 내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와 달라고만 해서 기분이 몹시 상했다.



다음은 대화와 관련한 학생들의 고민과 그에 대한 상담 내용을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며 읽어 보자.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목 [] 앞으로 전개될 화제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 : 담화 내용이 청취자를 염두에 둔 방송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10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대화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다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함께 살펴보며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처음: 대화의 개념과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 소개

☞ 제재 개관

갈래	라디오 방송 담화
성격	설명적, 실용적, 예시적
제재	언어 예절,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주제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과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특징	① 라디오 방송 형식과 구어체를 사용하여 친근하게 이야기하듯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②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법한 구체적인 대화 사례와 다양한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 ③ 질문을 통해 청취자(독자)의 적극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오늘의 사연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야 해요.

중간 1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죠.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어 예절

개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
고려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 대화의 상황

②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회사에서 실수를 하여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딸이 어머니에게 속상함을 토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꾸중 들은 것이니 앞으로 더 노력하라고 말했고, 딸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경우 어머니가 말한 내용 자체는 사실이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에게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한 딸의 상황을 어머니가 헤아리지 못하여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 '사과'와 관련한 재영이의 사연을 들어 봅시다.

제가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 사과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재영: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재영: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 했어.

소희: 그래? 미안하다. **재영이의 변명**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었던 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소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

재영: 상대방인 소희를 탓하는 말 역지로 사과하는 듯한 인상을 줌.

소희: 너 정말 미안한 거 많니?

📣 사과는 이렇게 하세요.

✓지도 Tip

사과를 할 때에는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첫째,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해요. 사과할 때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잘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한다면 사과의 마음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야 해요.

사과의 방법 ②
 “미안해, 그런데 그때 나는…….” 하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된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탓하는 말을 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해요.

사과의 방법 ③
 대화에서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의 크기와 같은 **준언어적 표현**과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말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사과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음.

■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으로도 불리며,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의 크기 등과 같이 언어적 내용과는 분리된 음성적 요소를 말한다.
비언어적 표현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얼굴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이 언어 외적인 형태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말의 내용과 어울리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청취자 여러분, 재영이가 어떻게 사과하면 좋았을까요?



예시 답안 |

재영
 소희야, 어제 조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해. 참석을 못 한다고 미리 연락하지 않아 너희들을 기다리게 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조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조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꼭 미리 연락할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번 일은 진심으로 사과할게.

✉ ‘부탁’과 관련한 명찬이의 사연을 들어 봅시다.

15 부탁할 때에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명찬: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 줘. 연호의 사정이 어떤지 묻지 않고 자신의 요청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연호: 음, 나 오늘 옆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명찬: 그냥 좀 바빠서 그래. 께제하게 굴지 말고 좀 해 줘.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상대를 비난하듯 말하고 있음.

연호: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 명찬이의 말하기 태도

- 연호의 상황을 살피지 않음.
 -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청을 말해 연호가 부담을 느끼게 함.
 - 연호를 비난하듯 말함.
- 부탁의 상황에 적절한 언어 예절을 갖추지 못함.

부탁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야 해요.

부탁의 방법 ①

부탁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방이 그 청을 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요청을 들어 줄 만한 상황인지 먼저 살피는 태도가 필요함.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앞세워 말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도 Tip

교사용 지도서 100쪽 '수업 연구 자료' 참고

들 자료실

공손성의 원리_ 공손성의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있다.

-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요령의 격률)
-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관용의 격률)
-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며 말하기(찬동의 격률)
-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겸양의 격률)
- 동의하며 말하기(동의의 격률)

둘째,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해요.

부탁의 방법 ②

부탁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 '괜찮다면', '~할 수 있어?' 등과 같은 표현이나 '조금', '잠깐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부탁에 대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여 주는 표현

셋째,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야 해요.

부탁의 방법 ③

부탁하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부탁하면 상대방은 부탁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부탁하는 상황과 까닭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큼.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무례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수업 아이디어

교과서 16쪽의 '재영'과 17쪽 '명찬'의 입장에서 각각 사과의 말과 부탁의 말을 써 보고, 짝과 역할극을 해 보게 한다. 이때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하도록 한다.



명찬

예시 답안 |

연호야, 혹시 수업 끝나고 시간 좀 있지? 오늘 멀리 사시는 친척 분들이 집에 오시는 날이라 일찍 가 봐야 하는데, 하필 내가 오늘 교실 청소 당번이거든. 그래서 네가 괜찮다면 나 대신 교실 청소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부탁할 때의 언어 예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건의하는 일이 많지요. 건의하는 말하기의 특징 건의는 부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할 때에도 부탁할 때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건의할 때의 유의점 - 높임 표현, 정중한 태도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건의할 때에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정중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 대화를 잘하는 방법

▶ 중간 1: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 - 사과, 부탁과 건의 상황의 말하기

<p>대화의 원리를 지켜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켜 말한다. (순서 교대의 원리) •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 	<p>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말한다. •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말한다.
------------------------------	---	------------------------------	--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 중간 2**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의 말은 어휘나 억양에서 차이가 나며,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말은 어휘나 말투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말하기 습관을 지니고 있지요. 이처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듣기·말하기 방법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듣기·말하기 방법은 개인적 성향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옳고 그름의 문제나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듣기·말하기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10 이 좋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법과 관련한 사연을 들어 봅시다.

- 15 **가**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제도 급히 집을 나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셔서 친구 생파에 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생파를 가져다 달래?”라고 하셔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생파’라는 단어는 ‘생일 파티의 줄임말로 젊은 세대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할아버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발음이 비슷한 ‘생파(익히지 않은 파)로 알아들음.



- 20 **나**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군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을 가면 서울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예요. 지금까지 쓰던 사투리를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 25 **다** 최근에 친구에게서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렇구나.” 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가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지역 간의 언어 차이	예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의 말
세대 간의 언어 차이	예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말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	개개인이 지닌 독특한 말하기 습관

① 각각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예시 답안 1 ①의 학생은 세대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 어르신과 소통이 잘 안 되어 고민하고 있으며, ②의 학생은 사투리를 쓰는 지방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지역 간의 언어 차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③의 학생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친구와 갈등을 겪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첫째,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세대·지역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
듣기·말하기 방법은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5

우선 청소년 세대는 신어, 준말 등을 자주 쓰고,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새로 생긴 말 또는 귀화한 외래어. 이러한 말들은 그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말해야 합니다. 옛것과 같은 뜻이나 멋이 있는.

특정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말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
지역에 따른 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지역 방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10

둘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개인적 성향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
듣기·말하기 방법은 사회·문화적 특성 외에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②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특성일 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개인적 성향은 개개인의 특성일 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님.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듣기·말하기 특성을 지녔는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대화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15

❓ 자신의 듣기·말하기 방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1 나는 말을 할 때 결론부터 말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말할 내용을 빠르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끔 아무 설명 없이 결론부터 말하는 바람에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청취자 여러분, 앞의 사연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나요?

㉠ 세대 간의 언어 차이, **㉡** 지역 간의 언어 차이, **㉢** 개인적 성향에 따른 언어 차이

예시 답안 1

가: 할아버지는 노년 세대가 '생파'라는 줄임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생일 파티'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면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므로 그 특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전학을 가서도, 공적인 상황이나 친구가 지역 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쓰던 지역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 개개인마다 말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학생처럼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우회적인 말을 못 알아들은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친구의 말하기 방법을 고려하여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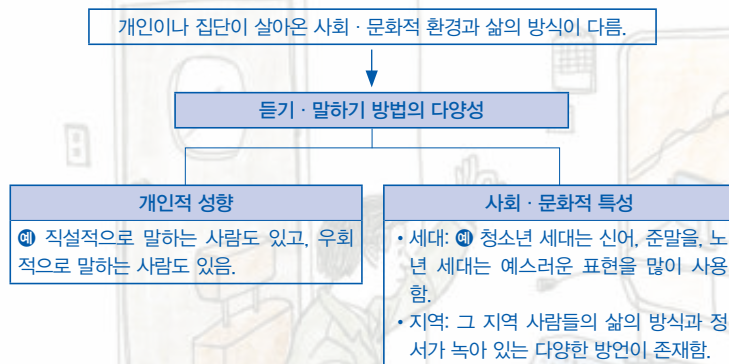
☆ 수업 아이디어

조언의 내용을 써 보는 것에서 나아가, 교과서 19쪽에 제시된 사연 내용을 대화로 재구성하여 말해 보게 할 수도 있다. **㉠**의 학생과 옆집 할아버지, **㉡**의 학생과 친구가 원활하게 대화한 내용을 짝과 함께 구성해 보고, 짝별로 발표해 보게 한다.

▶ 중간 2: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 끝** 지금까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화는 말로써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상대방 () : 원활한 대화를 위해 지녀야 하는 태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듣기·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도
5. 원만하게 이어 나갈 수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 ▶ 끝: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듣기·말하기 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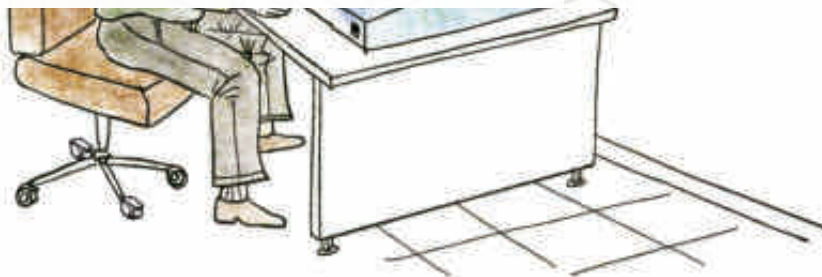
★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참고 자료 지역 방언의 가치

- ① 표준어의 기반: 표준어는 여러 방언을 바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어의 기반은 방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다양성의 토대: 방언은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들이 가진 정서와 사고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언어로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일구어 내는 토대가 된다.
- ③ 친근감 형성: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끼리 사용하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 준다.
- ④ 언어 연구 자료: 다양한 지역 방언들은 국어의 여러 가지 음운적·문법적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언어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 개인이나 집단의 화법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차이는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
- 원활한 대화를 위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말해야 함.





학습 활동

내용 학습

✓활동 안내 1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떠올리며 대화의 기본자세에 대해 정리하는 활동이다. 대화의 원리를 지키고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단히 짚어 본다.

✓활동 안내 2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 뿐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1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생각하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즉 서로 적절하게 **순서(차례)** 을/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 을/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은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 성향,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목표 학습

✓활동 안내 1

대화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찾아 문제가 된 부분을 적절한 표현으로 고쳐 보는 활동이다.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적용해 보도록 한다.

📖 제재 안내

자매간의 대화로, 동생 '강유'가 언니 '시진'에게 부탁과 사과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강유'는 '시진'에게 옷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시진'의 지적에 과거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강유'가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지 않은 탓에 '시진'은 부탁도 사과도 받아 주지 않고 있다.



1 다음 대화를 읽고,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알아보자.

가 일요일 아침, 강유는 연극 동아리 정기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빌리려고 언니 시진의 방으로 들어간다.

강유: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덩석 집으며)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시진: (당황하며) 어? 그 옷은 내가 무척 아끼는 옷이라 좀 그런데…….

강유: (실망하며) 그렇구나. 오늘 내가 입고 나가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산 내 바지하고도 잘 어울리고.

시진: 근데 넌 왜 항상 빌려 달라는 사람이 이런 식이야? 참, 그리고 보니 저 번에 옷 빌려 가서 엉망으로 해 놓고 사과도 안 했잖아.

강유: 아……. 그랬었나? (역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건 미안. 이제 됐지? 그럼 이 옷 빌려줄 거지?

시진: (기분이 상하여)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말을 들으니 빌려줄 마음이 짝 사라졌어.



제재 안내

학생과 선생님 간의 대화로, 동아리 대표인 '주원'이 선생님께 건의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주원은 매달 연극 동아리에서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이 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주원이가 대표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는 달마다 연극을 단체로 관람한다. 이번
에 관람할 연극을 정하려고 할 때, 주원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말한다.

주원: 선생님, 이제부터는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 선생님께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 건의함.

선생님: 왜 힘들지?

주원: 서로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네가 고른 거 노잼일 것 같다니, 취향
이 안습이라느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도 안 좋고요.

선생님: (어리둥절하여) 응? 무슨 말이니?

(1) 가와 나에서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 **가**: - '강유'는 언니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앞세워 말했다.
- 부탁하는 까닭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공손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 사과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 - '주원'은 선생님께 건의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살피지 않았으며, 건의하는 까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세대에서만 주로 쓰는 '취존', '노잼', '안습'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가와 나의 대화에서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아 적절하게 고치고, 고친 표현을 써서 짝과 가, 나의 대화를 새로 해 보자.

표현을 써서 짝과 가, 나의 대화를 새로 해 보자.

예시 답안 |

✓지도 Tip

- 상황과 대상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고치도록 한다.
- 고친 내용을 짝과 말해 보면서 언어 예절에 맞는 표현을 직접 자기 목소리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짝별로 대화를 발표하게 하여 다른 친구들과 고친 표현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표현	고친 표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덩석 집으며)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건 미안, 이제 됐지? 그럼 이 옷 빌려줄 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가리키며) 언니, 오늘 동아리 모임에 가야 하는데 입을 옷이 마땅치 않네. 혹시 이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 (미안한 표정으로) 저번에 빌려 간 옷을 엉망으로 해 놔서 언니 기분이 많이 상했지? 그 일은 정말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입을게.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이제부터는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 서로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네가 고른 거 노잼일 것 같다니, 취향이 안습이라느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도 안 좋구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정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끼리 의견을 조정하는 게 힘들어서요. • 친구들끼리 서로 취향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디. 네가 고른 것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니 너는 취향이 형편없다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2 다음 대화를 읽고,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법을 알아보자.

✓ 활동 안내 2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이 드러난 대화를 살펴보고,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 제재 안내

경상도에서 서울로 와 '신촌 하숙'을 운영하는 '나정'의 가족과 하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대본이다. 여러 지역 출신의 하숙생들이 등장하여 각 지역 방언이 풍부하게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에는 남부 지방에서 '엄마'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게 된 서울 사람 '선준'이 실제로 그 말을 해 보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선준'은 다른 지역의 화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정'의 어머니에게 그 지역의 방언과 화법으로 말을 하였다. ㉡에는 '나정'이 던진 질문에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윤진'은 '성균', '호준', '동준'의 대답을 답답해하고, '나정'은 그들의 답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며 다른 답을 내놓는다.

경상도에 살던 나정의 가족은 서울로 와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정의 집에는 나정과 남매처럼 지내는 재준이 함께 살고 있고, 전라도에서 온 호준과 윤진, 경상도에서 온 성균, 충청도에서 온 동준이 하숙하고 있다. 고향이 서울인 선준은 나정이네 하숙집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어울리고 있다. 표준어를 쓰며 지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가



장면 아침, 서울 하숙집 식탁

나정, 재준, 선준이 하숙생들과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다.

선준: 그런데 재준 형님은 왜 나정이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하세요? 친엄마도 아니신데.

호준: 원래 아랫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불러, 우리 엄마도 엄마고 친구 엄마도 엄마 전라도에서 온 호준이 남부 지방에서 사용하는 화법임을 말해 줌.
여, 밑에선 다 그렇게 불러야.

선준: 아……. 친구 엄마한테도 엄마라고 부르고, 그거 진짜 좋다. 좋은 말 같다. 새로운 화법에 호감을 느낌.



장면 저녁, 서울 하숙집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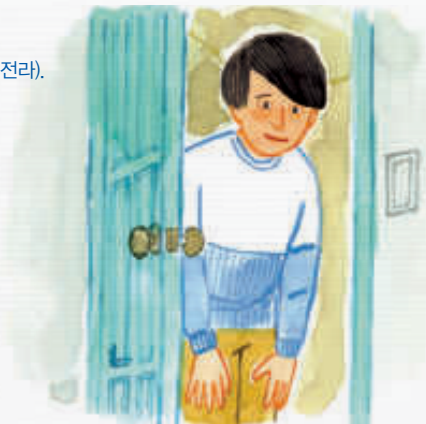
나정의 부모님은 밖에서 산 통닭을 하숙생들에게 주고 방으로 들어온다. 부부가 대화하고 있는데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며 선준이 모습을 드러낸다.

선준: 저, 통닭 같이 안 드세요? '너희'의 방언(경남, 전라).

나정 어머니: 됐다. 우리 마이 묵었다. 드그
나 마이 묵으라. '말이'의 방언(강원, 경남, 충북). 오늘 선준이 이제까지 써 왔던 호칭임. 아줌마가 밥도
못 챙겨 주가 미안타.
챙겨 주어서

선준: 아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 되게 잘 먹었어요. 나정이가 얼마나 잘 챙겨 줬는데요.

나정 아버지: 오매, 우리 팔내미가? 아따, 철들었네. (웃으며) 아, 뭇하냐. 어서 가서 닭 먹어.





선준: 네, 잘 먹겠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다시 열며)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머뭇거리다가 어색한 억양으로) 어머이, 어머이? (억양에 신경 쓰며) 어머이…….
지역 화법을 시도해 보는 선준 '어머니'의 방언(강원, 경남)

선준의 말을 들은 나정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나



장면 **오후, 대학 교정**



〈응답하라 1994〉
클립 영상

호준은 여자 친구의 말과 행동에 담긴 속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호준이 걸음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속마음과 다른 경우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호준의 상황 처한 상황을 들은 나정은 그럴 때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조언한다.

나정: 예를 들어 줄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 계속 기침이 난다. 퐁퐁퐁. 이때 남자 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이때, 남자 친구의 적절한 대답은?

성균: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호준: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나정과 윤진, 암울한 표정으로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균과 호준을 쳐다본다.



동준: 매연이 맞나 본디?

윤진: (성균, 호준, 동준을 향해) 답답하다, 답답해.

나정: 둘 다 아이다. 적절한 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상황에 공감하고 걱정해 주는 말

- 이우정, 《응답하라 1994》에서



✓지도 Tip

선준이 나정 어머니를 “어머이”라고 부를 때 억양까지도 신경 써서 말하였다는 점을 함께 짚어 준다.

✓지도 Tip

㉮에서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개인적 성향의 차이로 볼 수도 있고, 성별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성별 요인을 부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심어 줄 수 있고, 성별에 따른 화법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활동 안내 3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실제로 대화 연습을 해 보는 활동이다. 점검표를 통해 평소 자신의 듣기·말하기 방법과 태도를 평가하여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모둠별로 상황을 설정해 역할극을 해 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

언어생활을 꾸준히 점검하며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자.



(1) ㉮에서 ‘선준’이 ‘나정 어머니’에게 “어머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안 | ‘선준’은 ‘호준’의 말을 통해 남부 지방에서는 친구의 어머니도 ‘엄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이’는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엄마’라고 부르는 지역의 화법과 경상도 방언에 따른 표현이다. 경상도 사람인 ‘나정 어머니’는 그러한 화법에 익숙한 사람이므로, ‘선준’은 그녀에게 친근감과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 그녀가 가진 화법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머이”라고 부른 것이다.



(2) ㉮의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나정’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보고, 짝의 생각과 비교해 보자.

예시 답안 | 나는 ‘나정’에게 문을 열고 말할 것이다. 방 안에 있는 페인트 냄새는 충분히 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문을 열어서 페인트 냄새를 없애게 되면 그다음에는 문을 닫아 매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은 매연 때문에 힘들겠지만 문을 열어서 페인트 냄새를 없애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3) (1), (2)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을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자신과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이때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화법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풀이 |

㉮에서 ‘선준’은 지역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여 상대방을 배려한 말하기를 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에서 인물들이 서로의 말에 공감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마다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서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대화하는 연습을 해 보자.

(1) 다음 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보자.

점검 내용	자기 평가
나는 대화의 원리를 지키면서 말한다.	☺ ☺ ☺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 ☺ ☺
나는 부탁이나 건의, 사과 등의 상황에서 공손하게 말한다.	☺ ☺ ☺
나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말한다.	☺ ☺ ☺
나는 세대, 지역, 성별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듣고 말한다.	☺ ☺ ☺

예시 답안 |

→ 개선할 점:

- 나는 그동안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말을 하기에 바빴던 것 같다. 앞으로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갖고 들어야겠다.
- 나는 부탁이나 건의를 할 때 상대방의 처지가 어떠한지 확인하지 않고 내 용건부터 바로 말했는데, 앞으로는 상대방이 내 부탁이나 건의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야겠다.
- 나는 사람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잘 몰랐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특성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고려하여 말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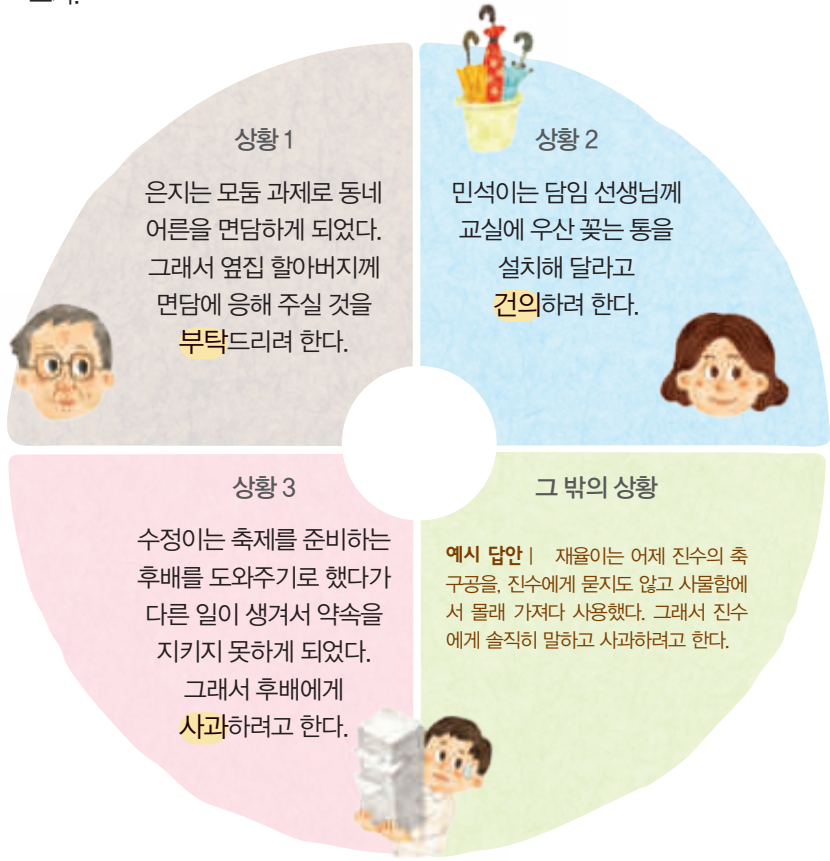
모둠 활동

✓지도 Tip

앞서 배운 사과, 부탁, 건의의 상황 가운데 고르거나 새로운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과 대상을 고려한 적절한 대화 내용을 만들어 실제로 대화를 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지켜 말하는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2)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언어 예절에 맞게 모둠별로 역할극을 해 보자.

- 1 모둠 안에서 짝을 이루어 다음 상황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자.



✓지도 Tip

학생들이 역할극 대본을 작성할 때, 본문에서 학습한 사과나 부탁의 방법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도 고려하여 지시문의 형태로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사과나 부탁을 하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사과나 부탁을 받는 사람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2 자신과 짝의 역할을 나누고,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역할극 대본을 써 보자.

예시 답안 |

- **역할** • 나: 재울 • 짝: 진수
- **대본**
- 재울: (머뭇거리다가) 진수야, 나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 진수: 사과? 무슨 일인데
- 재울: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사실 어제 방과 후에 네 사물함에서 축구공을 가져갔어. 다른 반 애들이랑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체육관 문이 닫혀 있어서 마땅한 축구공이 없었거든. 너를 찾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 전화는 왜 안 받았니? 아무튼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한테 미리 말하지 못하고 축구공을 꺼내 썼다가 다시 가져다 났어.
- (진수와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담아 침착한 목소리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네 허락 없이 물건 가져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할게.
- 진수: 괜찮아. 친구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 (잠깐 멈추었다가) 그래도 네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 주니 기분은 좋다. (웃는다.)

도움말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부탁이나 건의, 사과 등의 상황에서 주고받기에 적절한 말로 대본을 구성한다.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2의 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로 역할극을 해 보자.

예시 답안 | 생략

도움말

역할극을 할 때에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다. 대화 상황에 따라 대본에 없는 말을 즉흥적으로 해도 좋다.

✓지도 Tip

- 모둠 내에서 짝끼리 번갈아 가며 역할극을 한다. 다른 모듬원의 역할극을 볼 때에는 역할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 교실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모듬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지도한다.



4 역할극을 하며 나눈 대화를 모듬원끼리 서로 평가해 보자.

예시 답안 |

도움말

26쪽 목표 학습 3의 (1)에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모듬원	평가	칭찬이나 조언의 말
정원	★★★★★	재울이가 사과의 말을 잘한 것 같아.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이 좋았어.
수희	★★★★★	사과할 때에는 준언어적 표현도 중요하네, 재울이가 진심을 담아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았어.
보라	★★★☆☆	“전화는 왜 안 받았니?”라는 말은 자기가 축구공을 몰래 가져간 게 마치 진수의 탓인 양 말하는 것 같아서 사과의 말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활동 안내 다음 물음을 통해 소단원의 학습을 점검하고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소단원을 마치미

PPT 소단원
핵심 정리

소단원 핵심 정리 소단원 5분 평가 소단원 형성 평가

-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을 짝과 한 가지씩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지켜서 말해야 한다. /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 상황에 맞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앞으로 대화할 때 어떤 방법과 태도로 듣고 말할 것인지 다짐을 적어 보자.
예시 답안 | • 사과나 부탁을 할 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야겠다.
• 세대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잘 모르는 세대 언어 사용을 삼가야겠다.

(2) 소통하는 글쓰기

- 학습 목표**
1.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한다.
 2.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소단원 열기



✓ 활동 안내

교지에 수록된 글, 편지, 인터넷 글 등과 같이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썼던 경험을 떠올려 봄으로써, 글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 간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하기 위한 활동이다.

✓ 지도 Tip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자유롭고, 학생들도 그와 관련한 경험이 많을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에스엔에스(SNS)에서의 글쓰기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한 경험을 자유롭게 떠올리게 한다. 이를 통해 쓰기를 통한 상호 작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인식하게 한다.

- 다음을 참고하여 자신의 글을 통해 독자와 소통한 경험을 떠올리고, 아래 물음에 답해 보자.



▲ 인터넷 글

(1)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가?

예시 답안 | •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름 방학 동안 국토 수호를 위해 독도에 다녀온 여행기를 썼다.
• 누리꾼들에게 '포켓몬고' 등과 같은 증강 현실 게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을 써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그리고 그 글에 달린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내 의견을 추가로 올렸다.

(2) 자신이 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때의 느낌은 어떠하였는가?

예시 답안 |
• 한 친구로부터 내 글을 읽고 독도에 관심이 생겨서 자신도 꼭 가 보고 싶어졌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그때 내가 독도를 다녀오고 그 여행기를 쓴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다.
• 내 글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내 글에 반박하는 댓글도 꽤 있었는데, 내가 잘 몰랐던 점을 지적해 주는 내용들이어서 생각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한 학생이 청기와와 관련한 경험을 소재로 하여 블로그에 쓴 글과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의 댓글이다. 글쓴이와 독자가 글을 매개로 하여 소통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읽어 보자.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 검색 📷 사진 🎥 동영상 🗣️ 알림 📅 방명록



👤 호기심 많은 영훈이

인물 소개 > 쪽지 > 이웃 추가 >

- 전체 보기(30)
- 일기장(10)
- 역사 이야기(1)
- 역사책 읽기(19)

🔍 검색

글을 실은 매체 및 특징

인터넷 블로그

- 많은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음.
-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함.

내용 조직의 특징

'경험-깨달음'의 구조

청기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함.

| 역사 이야기 | (1)

목록 보기 | 요약 보기 | 펼쳐 보기

'청기와' 발견 사건

20△△년 0월 00일

처음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 드리다가 땅속에 묻혀 있는 돌 조각을 발견했다. 꺼내 보니 내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와였

다.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 있을 10
 까?' 하고 생각하며 기와를 살펴보던 나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 시대 청기와 색깔 (: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 지어 생각함.)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혹시 이게 조선 시대 청기와는 아닐 15
 조선 시대 청기와 색과 비슷하다는 점, 할아버지 댁이 경복궁 근처라는 점에서 추측함.'
 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가져왔다. ▶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와를 발견하고 그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중간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 봄.와가 출토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신문 기사에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당장 도서관 20
 으로 달려가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 《세종실록》에 '청와(靑瓦)' 관련 서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 봄. 청기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문종실록》에는 근정전과 사정전 경복궁 안의 건물에 청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 제재 개관

갈래	수필(인터넷 블로그 글)
성격	교훈적, 반성적
제재	청기와와 관련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주제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
특징	① '경험 - 깨달음'의 구조를 통해 글의 의미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② 신문 기사와 책 등 여러 자료에서 조사한 내용을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시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고 광해군 대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청기와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라는 믿음이 강해졌다.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짐.
 5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와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와는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 기와를 본 주변 친구들도 하나 같이 옛날 경복궁 청기와가 맞는 것 같이라며 놀라워했다. 할아버지 댁 마당을 조사해 보면 다른 유물들이 더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할아버지 댁이 있는 곳
 ▶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이 발견한 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임을 확신함.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전문가를 확신을 바탕으로 한 영훈이의 적극적인 태도
 10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 서였다. 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교수님께 찾아봐어도 되는지 전자 우편으로 여쭙었다. 다행히 와도 좋다는 답장을 받았다. 답장을 받자 전문가에게 연락한 수단(매체)
 마자 바로 찾아가 뵈고 기와를 보여 드렸다.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교수님께서 기와를 보시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
 15 하셨다.

“이건 페인트칠을 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 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함. → 대화 상황을 사실감 있고 생생하게 나타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나는 민망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듣고 실망함.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 차분해
 20 졌다. ▶ 전문가에게서 자신이 발견한 청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함

끝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 시대 청기와였으면 하는 마음에 선불리 그렇게 단정 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 것이다.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직접적으로 제시함.

독자들이 청기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책에서 본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해야겠어.

영훈이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며 '독자'를 고려한 점



▶ 표현상의 특징

-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냄.
- 글쓴이가 만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생생하게 전달함.
- 글쓴이가 발견한 기와와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 시대 청기와 사진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다녀간 사람

- 나비의 꿈
- 너나들이
- 역사 대장

방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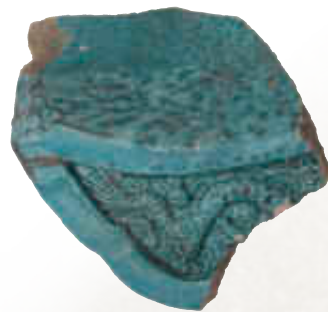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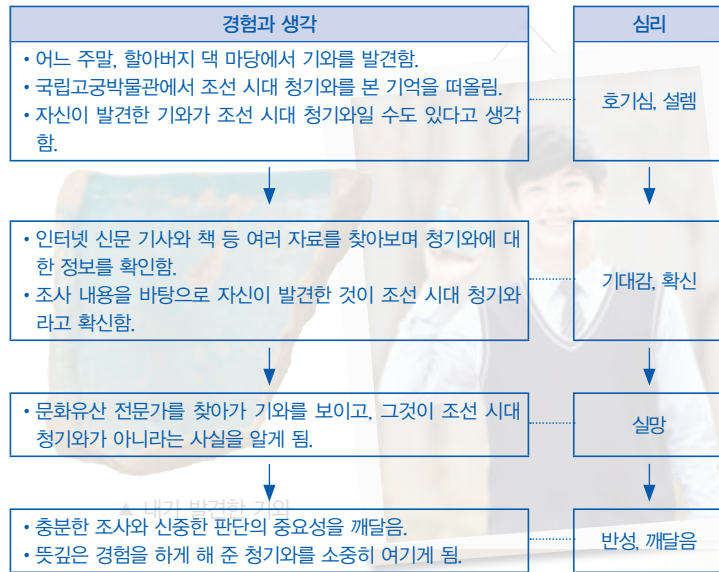
- 오늘 21
- 전체 326

내가 발견한
기와와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 시대 청기와 사진을
제시해야지. 그러면 독자들이
청기와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글을 더욱 실감 나게
읽을 수 있을 거야.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곰곰이 생각하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내 방 한쪽에 놓여 있는 저것이, 비록 경복궁의 기와는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한 보물 1호이다.** () : 청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얻게 된 경험과 깨달음을 가치 있게 여겨 기와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함.
▶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깨달음.

영훈이의 경험과 심리 변화



▲ 경복궁에서 출토된 청기와(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 영훈이의 글에 대한 독자의 다양한 반응

독자	독자의 상황	독자의 반응
나비의 꿈	청기와의 대해 잘 모름.	청기와의 대한 정보를 얻음.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김.
너나들이	자신의 평소 행동을 인식하고 있음.	글의 내용에 공감하며 자신을 성찰함.
역사 대장	청기와의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을 평가하고 글쓴이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

^ 댓글 8 | 공감 3

나비의 꿈 | 영훈 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와의 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글에 반
() : 영훈이가 쓴 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도 얻고 재미도 느끼
 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광해군 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와의 제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함.
 작되었다는 기록이 왜 없는 걸까요? 혹시 아시나요?

↳ **영훈이** |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기와의 만드는 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었
() : 자료 조사를 통해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영훈이가 독자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글쓴이와 독자 간
 고, 청기와의 만드는 주원료인 염초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에서
에 사회적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줌.
 는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쳐 청기와의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너나들이 |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 정말 공감해요.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
글에 나타난 표현에 공감을 드러냄
 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영훈이의 글이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음.

↳ **영훈이** |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 글이 너
 나들이 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역사 대장 | 청기와의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얻는 뜻깊은 경험을 하셨군요.^^ 청기와의
영훈이의 경험을 뜻깊은 경험이라고 평가함
 관심이 있으시면 창덕궁 선정전에 가 보시는 걸 추천해요. 청기와의 올린 건물이거든요.
역사 대장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
 앞으로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할게요.

↳ **영훈이** | 아, 창덕궁 선정전이 청기와의 올린 건물이군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창덕궁 선정전
 다. 꼭 가 봐야겠네요. 에 꼭 가 보겠다는 결심을 나타냄. → 글쓴이와 독자가 소통하여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역사 대장** | 창덕궁 가실 거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가
 보고 싶네요.^^

↳ **영훈이** | 네, 좋아요!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 볼게요.

■ 염초

질산 칼륨, 검은색 화약, 성
 냥, 비료, 유리, 유약, 산화
 제, 의약품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

내 글을 읽은
 독자들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구나.
 독자들이 쓴 댓글에 나도
 댓글을 써야겠다.



✓지도 Tip

영훈이의 글에 대한 댓글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가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독자의 댓글에 영
 훈이가 다시 댓글을 작성함
 으로서, 상호 작용이 일회성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지도 Tip

영훈이의 글을 읽고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공감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떠올려
 댓글로 적어 보게 한다. 또
 '역사 대장'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 정보가 있다면 그
 것을 알려 주는 내용을 쓸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이 블로그 글에 댓글을 달아 보자.

예시 답안 |



나빌레라

| 영훈 님이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한 것과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본 것은 의

미 있는 조사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 그렇게 조사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

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해서 찾았던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저도 영훈 님처럼 관
 심이 생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태도를 지녀야겠어요.



학습 활동

내용 학습

✓ 활동 안내

글의 내용을 '경험 - 깨달음'의 구조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이다.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은 글의 처음과 중간 부분에, 깨달은 내용은 글의 끝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

경험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와를 발견함.	→	자신의 배경지식과 여러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청기와라고 확신함.	→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기와를 보이고, 그것이 조선 시대 청기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됨.
깨달음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목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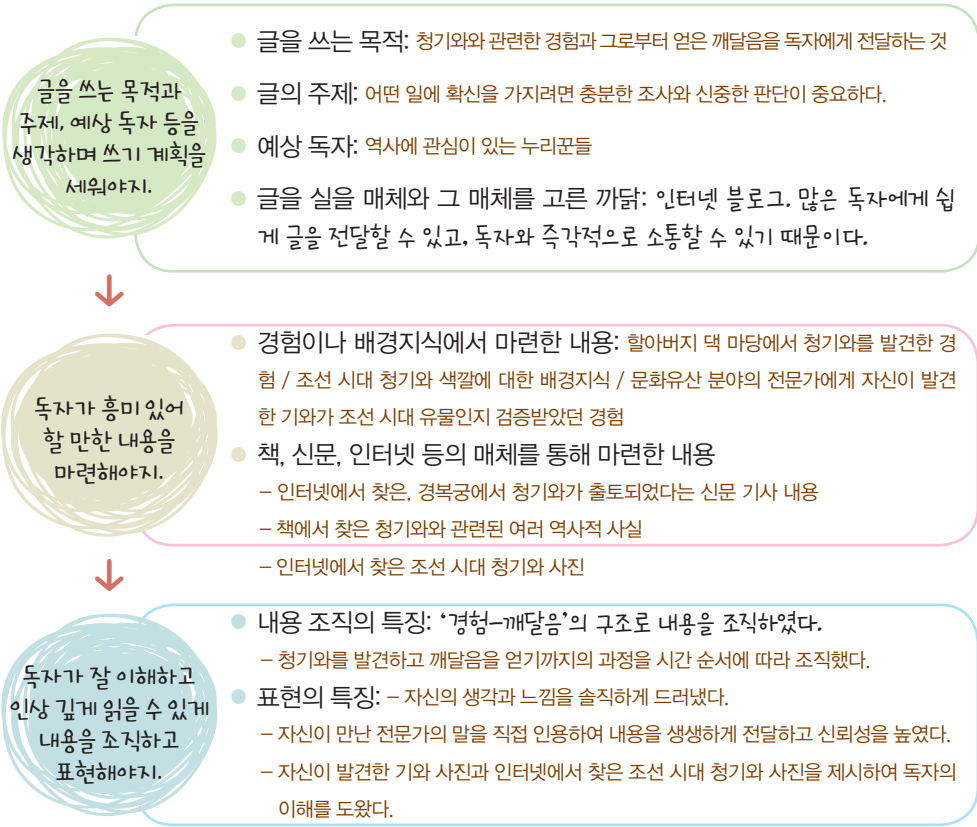
- 1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알아보자.

(1) 다음은 영훈이가 이 글을 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 곳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며 영훈이가 글의 의미를 구성한 과정을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

✓ 활동 안내 1

본문을 통해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 쓰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글쓴이가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과, 완성된 글을 매개로 하여 글쓴이와 독자 사이에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한다.



- 글을 쓰는 목적: 청기와와 관련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 글의 주제: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 예상 독자: 역사에 관심이 있는 누리꾼들
- 글을 실을 매체와 그 매체를 고른 까닭: 인터넷 블로그. 많은 독자에게 쉽게 글을 전달할 수 있고,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황에 따라 이렇게

영훈이가 의미를 구성할 때 사용한 전략을 학생들이 잘 찾지 못한다면, 글의 전개에 따라 본문에 제시된 영훈이의 사고 구술 내용을 참고하도록 짚어 준다.

- 경험이나 배경지식에서 마련한 내용: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와를 발견한 경험 / 조선 시대 청기와 색깔에 대한 배경지식 /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인지 검증받았던 경험
- 책,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마련한 내용
 - 인터넷에서 찾은, 경복궁에서 청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신문 기사 내용
 - 책에서 찾은 청기와와 관련된 여러 역사적 사실
 -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 시대 청기와 사진

✓ 지도 Tip

영훈이가 고려한 쓰기 맥락 가운데 '매체'에 주목하여, 블로그의 특징에 대해 보충 설명해 줌으로써 블로그의 특성이 글쓴이와 독자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돕는다는 점을 짚어 준다.

- 내용 조직의 특징: '경험-깨달음'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 청기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했다.
- 표현의 특징: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 자신이 만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 자신이 발견한 기와 사진과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 시대 청기와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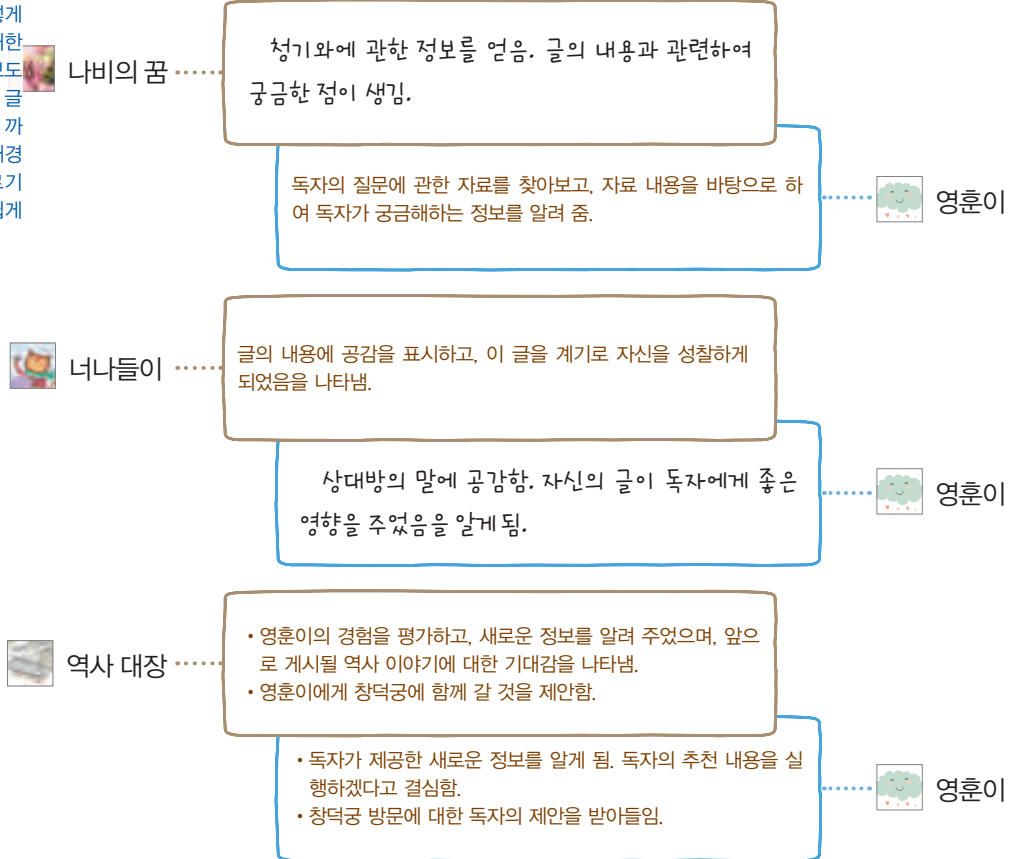


✓지도 Tip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정리할 때, 교과서 33쪽에서 학생들이 직접 쓴 댓글 내용도 함께 보며 자신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같은 글을 읽고도 반응이 다양한 까닭이 저마다 처한 상황(배경 지식, 관심사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글을 매개로 하여 영훈이와 독자 사이에 일어난 반응을 정리하고, 영훈이의 글에 독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한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



→ 영훈이의 글에 독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한 까닭: _____

같은 글이라도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수용되기 때문이다.

풀이 |

- '나비의 꿈'은 청기와의 대해 잘 몰랐다가 영훈이의 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고, 글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영훈이에게 질문하였다.
- '너나들이'는 평소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자신의 태도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신의 태도와 글에 나타난 영훈이의 태도가 유사하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 '역사 대장'은 청기와의 관련한 지식이 있고 역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훈이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창덕궁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 도움말

(1)에서 살펴본 영훈이의 쓰기 과정과 (2)에서 살펴본 영훈이와 독자 사이의 반응에 주목하여 정리해 본다.

(3) (1), (2)를 바탕으로 하여 쓰기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

- (1) → 글쓴이가 자신의 배경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기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쓰기가 의미 구성 과정을 알 수 있다. 또 쓰기 과정에서 글쓴이가 독자를 고려하는 것은 예상 독자와의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2) → 완성된 글을 읽은 독자들이 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알 수 있다. 즉,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활동 안내 2

학생들이 실제로 한 편의 글을 쓰고 독자와 소통해 보는 활동이다.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는 점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한다.

2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임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우리 반 친구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
글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알리고, 친구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도 알아보자. 서로를 더 잘 알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거야.



☆ 수업 아이디어

한 편의 글을 쓰기 전에, 특정한 사물에 빗대어 '나'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써 보게 할 수 있다.

- ① '나'를 빗대어 나타낼 사물을 떠올려 보고, 그 사물을 떠올린 까닭을 정리한다.
- ② '나'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쓰고, 모둠원들과 각자가 쓴 글을 돌려 읽으며 그 글들에 대해 댓글을 써 본다.
- ③ 모둠에서 인상적인 글과 댓글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 활동의 순서와 내용

-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순서로 글을 쓴다.
-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짝과 소통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 완성한 글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다. 이때 사진 자료도 함께 올릴 수 있다.

(1) 자신의 관심사를 떠올려 보고, 무엇을 소개할 것인지 정해 보자.

내가 관심 있는 것

예) 여행, 음식, 운동, **영화**, 음악

↓

- 나의 여행 경험
- 가 보고 싶은 여행지
- 즐겁게 여행하는 방법

예시 답안 |

- 영화의 탄생과 역사
- 영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 관심사 가운데 소개할 것

예) 가 보고 싶은 여행지 '부여'

예시 답안 |

내가 좋아하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

(2)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등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쓰기 맥락'을 구성한다. 자신의 쓰기 맥락을 분석해 보자.

예시 답안 |

이 글을 왜 쓰는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볼 것을 추천해 주기 위해
누가 이 글을 읽을 것인가?	우리 반 친구들
무엇을 소개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 그려진 당시의 시대상과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왜 그 대상을 선택했는가?	빌리 아버지가 빌리의 미래를 위해 자기 신념을 포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떤 매체에 글을 실을 것인가?	우리 반 인터넷 게시판

✓지도 Tip

- 소개할 대상을 선택할 까닭을 충분히 생각해 보게 한다. 앞에서 배운 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 독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내용을 선택해야 함을 짚어 준다.
- 쓰기 맥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개 대상을 바꿀 수도 있음을 알려 준다.



작 활동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하고, 표현한 것을 짝과 바꿔 보고 서로 조언해 주자.

- 쓰기 맥락을 고려할 때 고칠 부분은 없는가?
-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가운데 친구의 글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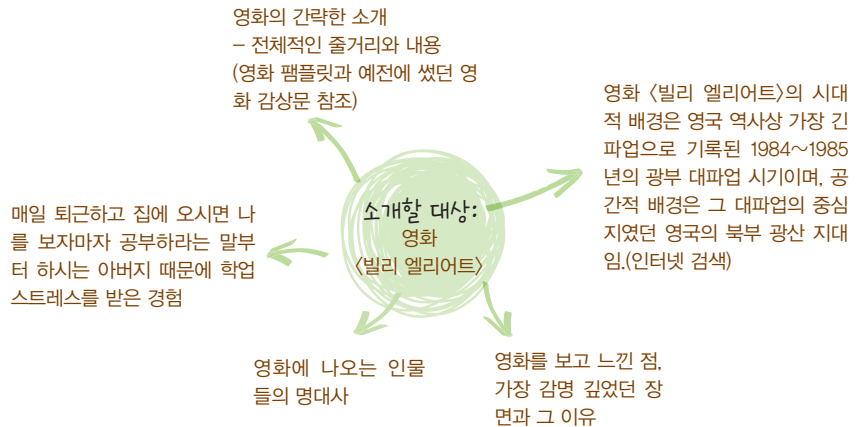


짝의 조언

내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 당시 영국 정부에서 광부 노조를 '내부의 적'으로 명명하여 강경 진압을 했고, 1년이 넘는 기간 탓에 파업은 서서히 와해되었다고 하더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화 속 인물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

(3) 소개할 대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또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마련해 보자.

예시 답안 |



✓지도 Tip

개요를 작성하면서 쓰기 맥락에 비추어 내용이 적절한지, 각 내용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도한다.

작 활동

(4) (3)을 바탕으로 하여 개요를 작성해 보자.

예시 답안 |

처음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내게 공부하라는 말부터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과 그로 인해 아버지께 반감을 가졌던 경험

중간

- 영화 <빌리 엘리엇>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영화 <빌리 엘리엇>의 등장인물과 배경
- 영화 속 파업과 관련한 영국의 시대적 상황
- 영화 속 '빌리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부정(父情)

끝

영화를 보고 느낀 점, 독자에게 영화 관람을 권하는 이유

짝의 조언

글의 처음 부분에는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개인의 경험을 바로 제시하면, 독자가 읽을 때 무엇을 소개하려는 글인지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



✓지도 Tip

-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글을 실을 매체가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 글을 짝과 바꾸어 읽어 보고, 짝의 조언을 참고하여 글을 고쳐 쓰도록 한다.

짝의 조언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이나 흐름이 좋은 것 같아. 다만 이 글의 초점이 '빌리 아버지'의 부정(父情)에 있으니까, '빌리'의 발레 수업 장면보다는 '빌리 아버지'와 '빌리'가 등장하는 장면의 사진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5)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쓰고, 우리 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보자.

예시 답안 |

클쓰기

제목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 숨겨진 따뜻한 부정(父情)

영화 <빌리 엘리어트>는 탄광촌 출신 소년 '빌리'가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발레라는 꿈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빌리'가 어려움을 이겨 내고 발레리노가 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 숨겨진 '빌리 아버지'의 가슴 아픈 '부정(父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빌리'는 탄광촌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와 형은 광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빌리'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레를 배우기 위해 멀리 런던의 학교로 가려고 할 때, 파업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없어 '빌리'의 학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영국의 탄광촌에서 파업이 일어났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영국의 대처 정부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조의 파업 중에, '빌리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아들을 런던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파업을 포기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때 '빌리 형'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동지들을 버리고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비난하죠. 하지만 '빌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빌리는 발레의 천재일지도 몰라. 우린 이미 끝났어. 우리에게 무슨 선택이 있지? 빌리에게 기회를 주자꾸나." 아들에게 미래의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모습에서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제게 공부하라고 늘 다그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 때문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평소 아버지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화를 통해 '빌리 아버지'의 따뜻한 부정을 느끼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 확인

(6) 댓글로 감상을 나누며 친구들과 소통해 보자.

- 1 우리 반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친구들의 글을 읽고, 느낀 바를 댓글로 적어 보자.

예시 답안 | 생략

- 2 자신의 글에 친구들이 어떤 댓글을 썼는지 확인해 보고, 친구들의 댓글에 자신도 댓글을 써 보자.

예시 답안 | 생략(교사용 지도서 119쪽 참고)

✓활동 안내 다음 물음을 통해 소단원의 학습을 점검하고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 학습한 것을 떠올리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써 보자.

예시 답안 |

쓰기는
소통
(이)다.

- 글을 쓰면서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을 짝과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 •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을 예상 독자를 고려하며 써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다. 글을 읽을 사람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글을 쓰는 데 많은 제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나는 내 글을 다른 사람이 읽고 댓글을 달아 주는 것이 좋았다. 내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고, 내 글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다.



소단원을 마치며

PPT 소단원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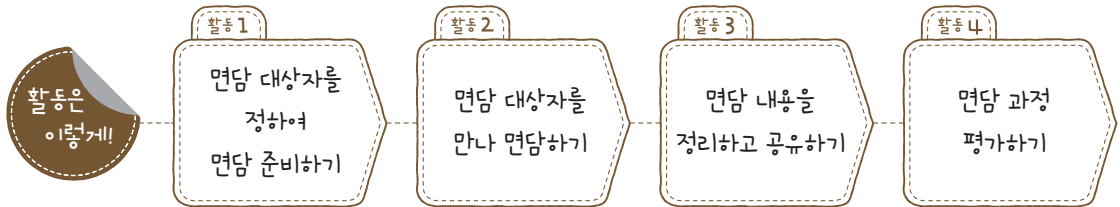
소단원 핵심 정리 소단원 5분 평가 소단원 형성 평가



우리 동네 이웃 면담하기



여러분은 자신의 동네에 어떤 이웃이 사는지 알고 있는가? 이웃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며 이웃과 사귀어 보자. 이때 이 단원에서 배운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고 면담 보고서를 써 보자. 이웃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이웃 사이의 정이 두터워질 것이다.



활동 1 모둠에서 면담 대상자를 정하여 면담을 준비해 보자.

✓활동 안내 1

면담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활동이다. 모둠별로 면담 대상자를 정하고 면담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 도움말

면담 목적은 자신의 상황이나 면담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면담을 통해 진로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면담 대상자가 마을에 오래 사신 어른이라면 마을 역사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누구를 면담할지 생각해 보고, 면담 계획표를 작성해 보자.

예시 답안 |

면담 목적	삶의 경험과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
면담 대상자	꽃집 할머니
면담 대상자로 정한 까닭	꽃집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꽃집을 운영하면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많이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면담 희망 일시	2000년 0월 0일 오후 5시
면담 희망 장소	사랑의 꽃집
준비물	녹음기, 수첩, 필기도구, 카메라

✓지도 Tip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면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모둠이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 계획표를 작성하면 교사가 이를 점검해 주는 것이 좋다.





도움말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면담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면담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이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한다.

✓지도 Tip

면담을 요청할 때 정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면담 대상자는 대체로 학생들보다 연장자일 것이므로 세대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부탁의 상황이므로 이에 적절한 언어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준다.

(2) 면담 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보자.

예시 답안 |

면담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 • 연령대: 60대 • 성별: 여 • 직업이나 그 밖의 사항: 꽃집 주인으로, 30년 동안 꽃집을 운영함.
면담 대상자에게 말할 때 고려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대상자는 60대 어르신이므로, 세대를 고려하여 젊은층에서만 사용하는 어휘를 쓰지 말아야 한다. • 면담 요청은 부탁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 면담자의 상황을 살피고, 면담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면담을 요청하는 말	<p>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국어 과제로 '우리 동네 이웃 면담하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할머니를 뵙고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꽃집을 운영하시면서 얻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꽃집 일을 하시느라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저희와 면담을 해 주신다면 할머니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 저희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면담 요청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면담 요청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일시: 20○○년 ○월 ○일 ○시 • 면담 장소: 사랑의 꽃집 • 특이 사항: 꽃집의 영업시간에 면담을 진행해야 하므로, 면담 중간에 손님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소란스럽게 하거나 주변의 꽃을 상하게 하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3) 면담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질문지를 만들어 보자.

도움말

질문은 면담 목적에 맞아야 하며 간략한 것이 좋다. 또한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하면 좀 더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지도 Tip

- 면담 목적을 고려하여 모둠원들이 면담 대상자에게 궁금한 점을 써서 모은 다음에, 모둠 내 논의를 통해 질문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여 최종 질문지를 만들도록 한다.
- 질문은 넉넉하게 준비하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표시하여 면담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면담 질문지	
• 예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셨나요?	-----
• 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
•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
• 꽃을 사러 온 사람들 가운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
• 오랫동안 꽃집을 운영하셨는데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 할머니께 '꽃'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특별한 꽃이 있으신가요?	-----



활동 2 모둠원의 역할을 나누고, 면담 대상자를 만나 면담해 보자.

✓활동 안내 2

실제로 면담 대상자를 만나 면담을 하는 활동이다.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모둠원의 역할을 나누고 면담의 유의 사항을 숙지하도록 한다.

(1) 모둠원의 역할을 나누어 보자.

예시 답안 | 생략

역할	이름
질문하기	
기록하기	
녹음하기, 촬영하기	

(2) 다음에 유의하여 면담을 진행해 보자.



도움말

면담 대상자의 특성(세대·성별·지역·개인적 성향)을 고려하여 면담한다. 이때 언어 예절에 신경 써야 한다.

- 면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면담 상황을 촬영하려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
-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질문한다.
- 면담 대상자와 적절히 눈을 맞추면서 경청한다.
- 필요하다면 준비한 질문 밖의 것도 추가로 질문한다.
- 면담 대상자가 답변하기 곤란해할 때에는無理하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시 답안 | 생략





✓활동 안내 3

면담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이를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이다.

활동 3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모둠별로 면담 보고서를 쓰고, 이를 모아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소책자를 만들거나 인터넷에 올려 공유해 보자.

예시 답안 |

도움말

면담 대상자의 특성을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예) 꽃보다 아름다운 ○○○ 꽃집 할머니

면담 목적, 면담하기까지의 과정, 면담 대상자의 첫인상 등을 쓴다.

질문과 관련하여 면담 대상자가 들려준 이야기나 조언 등을 쓴다.

✓지도 Tip

- 면담 보고서 양식은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면담 보고서는 분량의 범위를 정해 주고, 면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선별, 조직하여 써야 함을 사전에 안내해 준다.
- 면담 내용과 면담 상황을 적절히 안내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느끼고 깨달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면담하면서 어려웠던 점, 보람을 느낀 점, 면담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쓴다.

면담 보고서

• 제목 꽃보다 아름다운 ○○○ 꽃집 할머니

• 들어가며

우리 모둠은 면담 대상자 선정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는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빵집을 운영해 온 빵집 아저씨를 면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저씨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빵집 문을 닫는 바람에 면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꽃집 할머니를 면담 대상자로 정했는데, 다행히 민서가 그 꽃집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민서의 얼굴을 알고 계시는 할머니께서 흔쾌히 면담에 응해주셨다.

• 면담 내용

꽃집 할머니와의 면담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우리는 면담 내내 향긋한 꽃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매일 예쁜 꽃에 둘러싸여 살고 계신 꽃집 할머니가 참 복 받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꽃집 일에 대한 질문으로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였다.

• 꽃집에서 일하시기에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께서는 꽃집 일이 걸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도 세고, 가시가 있는 꽃에 찔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다. 실제로 할머니의 손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았다. 꽃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그 일을 쉽게 판단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 꽃을 사러 온 사람들 가운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할머니께서는 한 시각 장애인 부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다. 부부는 둘 다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셨다. 꽃은 꽃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거라고 하셨다.

•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특별한 꽃이 있을까요?

꽃집 할머니는 우리에게 '안개꽃'을 추천해 주셨다. 안개꽃은 늘 다른 꽃과 묶어서 파는 데, 다른 꽃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이 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 할머니께 '꽃'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축복, 축하, 격려, 위로, 사랑' 등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이 꽃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다.

• 마무리하며

쉽고 편할 줄만 알았던 꽃집 일이 사실은 많이 힘들다는 것은 정말 의외였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는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할머니께서 단순히 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꽃과 같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기쁨이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인간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활동 4

면담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자.

✓활동 안내 4

면담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자기 모둠의 면담 수행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는 활동이다. 면담의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한다.

(1) 자기 모둠의 면담 수행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자.

예시 답안 | 생략

평가 내용	평가
면담 계획을 잘 세우고 사전 준비를 잘하였다.	😊 😊 😊
면담 목적과 면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질문을 마련하였다.	😊 😊 😊
면담 상황과 면담 대상자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면담하였다.	😊 😊 😊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충분한 답변을 얻었다.	😊 😊 😊
모둠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 😊 😊

(2) 면담을 하고 느낀 바를 모둠원들과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 면담을 하면서 사전 준비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꽃집 할머니'라는 대상에 맞게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면담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많이 당황해서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을 거야. 면담 목적과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질문을 미리 준비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단원이 마무리

✓활동 안내

빈칸을 채우면서 대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앞뒤 내용을 잘 살펴 맥락에 맞게 빈칸을 채우고, 각 소단원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해 보도록 한다.

정리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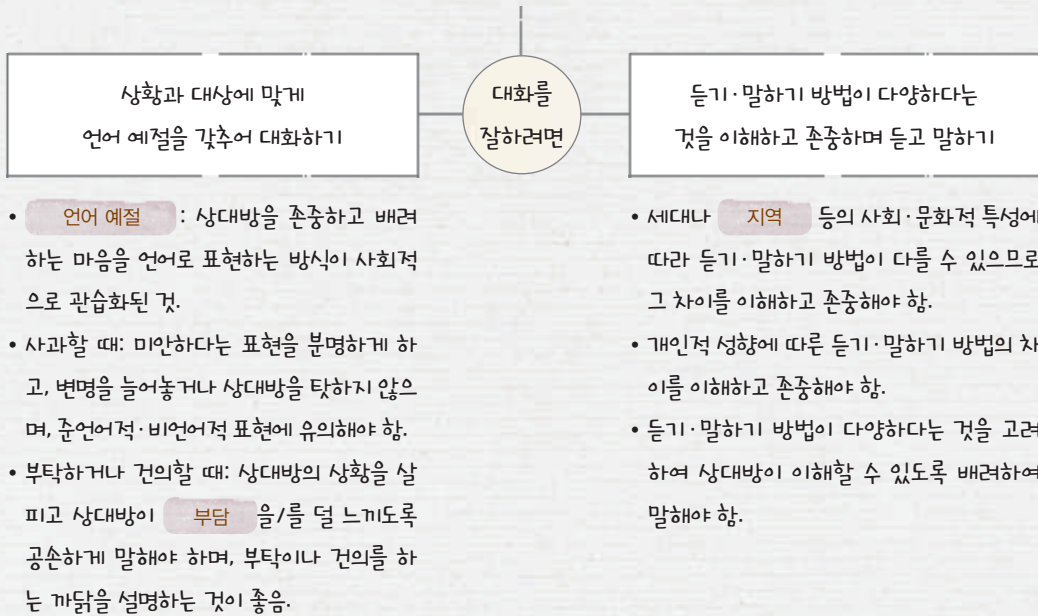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활용 자료

- 교사용 DVD: 소단원 핵심 정리
- 교사용 지도서: 87, 89쪽 '핵심 강의'

대화의 원리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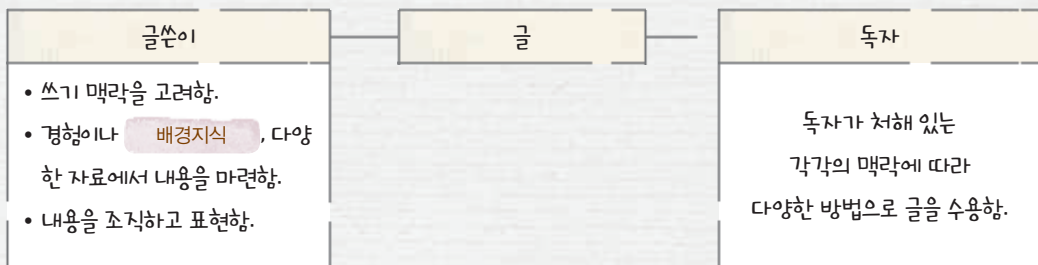
-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기.
-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하기.



소통하는 글쓰기

✓활용 자료

- 교사용 DVD: 소단원 핵심 정리



★ 쓰기 =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 **사회적 상호 작용** '



✓ 점검하기

✓ 활동 안내

소단원별로 제시된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해 보는 활동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달성 정도에 알맞은 칸에 표시하고, 해당 부분을 찾아 학습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지도한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해 보자.

	점검 내용	자기 평가	해당 부분
소단원 (1)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을 안다.	😊 😊 😊	14~28쪽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할 수 있다.	😊 😊 😊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듣기·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 😊	
소단원 (2)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안다.	😊 😊 😊	29~38쪽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 😊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느낀 점	다시 살펴보아야 할 점	더 알아보고 싶은 점
<p>✓ 활동 안내</p> <p>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그 결과를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교과서 13쪽 '미리 생각해 보기'에 썼던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것'을 참고하여 정리하도록 지도한다.</p>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후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 활동 안내

점검 내용에 따라 이후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후의 학습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이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배운 것을 자신의 실생활에서 적용하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폭넓게 세우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단원
종합 평가

대단원
수행 평가